

농림수산식품부

▶ AI 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금년도 '겨울철 조류 센서스' 결과, 국내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 철새의 개체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년 10월중 철새도래지 분변 3,560점에 대한 검사결과 4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포획 검사결과 10건의 H5 항체 양성미 검출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09/2010년) AI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가금류 사육농장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만천호 가금류 사육농가에 AI 방역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서한을 발송(11. 15일)한 바 있으며,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

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가 분리된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공무원 1명당 10호 내외)하여 전화 및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11월 9일 동안 집중관리 지역내 2,525호에 대한 임상예찰과 시·도 교차점검(50개 시·군 149호)을 실시한 결과, 농장내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미 설치 등 농가 위반사항 6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소독실시기록부 미 비치 운반차량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시 초동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가상 방역훈련(CPX)을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 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 축산물 HACCP 공급망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축산물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증제(HACCP)를 적용하여 생산·공급하는 '축산물



HACCP 공급망(HACCP Food Chai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20여개 시·군에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HACCP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120개 시·군에서 축산물 HACCP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약 40% 정도가 HACCP기법에 따라 생산·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지정 시범주체로 육성하여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 HACCP 적용시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 대해 「HACCP 일괄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며, 생산~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하여는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HACCP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해요소 예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축사육·축산물가공 단계에서 지켜야 할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원유냉각보관 등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일상적으로 위해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주된 식품 중의 하나인 우유류를 생산하는 유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HACCP 제도 활성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HACCP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ACCP 축산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리 우수 판매점에 대해서는 HACCP 평가와 위생감시를 통합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ACCP 적용의지는 있으나 위해분석·중요관리점 설정 등 HACCP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영세업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HACCP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은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알기 쉽고 보다 친근한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순화하고, HACCP 적용 축산물은 '안전관리 우수 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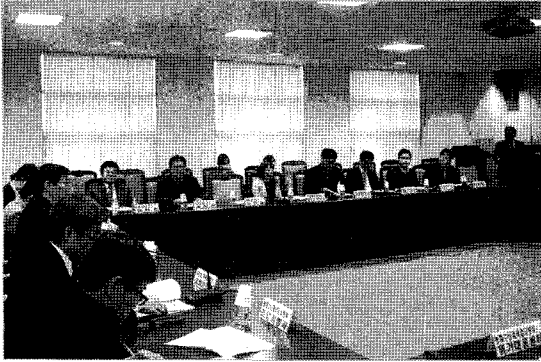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HACCP공급망이 구축되면 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AI 전문가 회의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철새도래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대학·협회·단체 등 각계의 AI 전문가를 초청,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주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HPAI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발생한 HPAI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북



방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시기를 맞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감염여부 조기 색출을 위해 상시예찰 강화, 철새 등 야생조류의 폐사 축 검사 강화 및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취약 부문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및 철저한 교육·홍보 등을 주문했고, 검역검사본부에서는 동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AI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초 AI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단체 등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발생대비 가상훈련(CPX) 실시 및 '구제역·AI 박멸의 날'을 지정·운영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단체 등의 적극적인 HPAI 재발방지 대책 참여와 의심축 발견시 조기 신고(1588-9060) 등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부화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업계, 협회,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화장 HACCP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안)'을 개발 완료하고 지난 11월 28일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화장 HACCP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화장 관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부화장 HACCP 추진사항과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안)은 선형요건프로그램과 HACCP 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초생추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종란과 초생추 관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 했다.

검역검사본부는 부화장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물HACCP고시 개정(12월 중순)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부화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번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안)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HACCP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화장 HACCP 평가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부화장 HACCP 적용을 통해 관련 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가축사육단계의 안전성을 끌어올려 HACCP Food Chain(HACCP 식품망) 구축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1월 15일 네덜란



드 와겐닝엔대학 및 RIKILT-식품안전연구원(원장 Robert Gorcom)과 농·축·수산물의 위생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와 「와겐닝엔 대학」 및 「RIKILT-식품안전연구원」간에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비롯하여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를 위해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와 RIKILT-식품안전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연구원 방문을 추진했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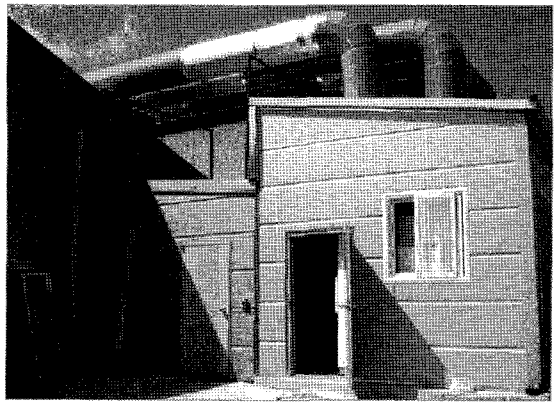
또한 농·축·수산물의 국제적 위해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과 관련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독성화학과는 이번 「와겐닝엔대학 및 RIKILT-식품안전연구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간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의 파견과 훈련 등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 할 국제공동연구, 연구원 훈련, 위해 정보 교류 등의 상호 협조체계 구축은 국민건강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 신재생에너지 지열로 계사 난방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계사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정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통해 현장 보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전북 진안의 육계농장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시험계사에서 3년동안 내·외부 시험을 거쳤다.

지열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는 에너지원으로, 1912년 스위스에서 지열히트펌프가 개발되고 1976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에서 지중열교환기가 개발되면서 실용화되었으나 일반건축물에 주로 이용되고 축사에 활용된 적은 없었다.

축산업 중 양계는 특히 에너지 사용이 큰 분야로 5만수 규모의 농가에서 연간 평균 4~5만 리터의 난방유를 사용하며, 면세유 가격 적용 시 1년에 들어가는 난방비는 5천만 원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시설원예용으로 수평형지열이용 시

시스템이 개발돼 보급 중이나 새로 개발된 모델은 축사에 적합한 수직개방형으로 지하 450m에서 15℃ 정도의 지하수를 퍼올려 열을 회수한 후 히트펌프를 이용, 여름철에는 10~15℃로 냉각시켜 냉방용으로, 겨울철에는 45~50℃로 가열시켜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기금과 최희철 연구관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계사의 규모와 사용목적별 에너지 부하량을 산정해 지열 에너지를 계사에 투입 시 낮과 밤, 닭의 주령별로 온·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사 내 환기시스템과 연계시켜 지열 에너지가 내부에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 핵심 기술들을 연계시키면 영하 10℃의 한 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34℃까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5만수의 육계를 키우고 있는 전북 진안의 한성농장(대표 한상림)의 경우, 지열난방을 한 계사는 기존 열풍기를 사용한 계사에 비해 난방비는 80% 절감됐으며, 계사 내 유해가스인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 농도도 각각 33%, 40% 감소했고 출하체중은 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용 열풍기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크고 작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열난방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 안전하고 수명도 반영구적이다.

5만수 규모의 농장에서 지열난방시설을 하려면 2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며, 난방유 절감액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연간 5천136만5천 원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발전 위해 美 아이오와대와 손잡아

농촌진흥청은 농축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아이오와주립대학교와 축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연구원의 장·단기 교류를 비롯한 축산관련 공동연구와 연구원들의 학위 취득과정 개발 등 두 기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안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농업생명대학, 수의대학은 향후 5년 동안 축산분야 연구, 교육, 농가 지도 등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하게 된다.

농촌진흥청과 아이오와주립대학은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발생 시 죽은 가축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농진청이 보유한 ‘사축 혐기소화 기술’과 아이오와주립대학교의 ‘사축 내 병원성 미생물 사멸기술과 사축 분해율 측정기술’을 융·복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난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는 두 기관 간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직문화 슬로건 및 실천규범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미래지향적 기관형성과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조직문화 슬로건 및 실천규범을 선정하고, 조직문화의 선진화와 유연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조직문화 슬로건으로 “존중과 배려, 소통과 화합”으로 정하여 임직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공유와 행동적 실천을 통해서 품질평가원만의 고유한 문화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조직문화의 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직급과 세대를 초월한 열린 소통, 동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서로의 다양성 인정, 독단적 판단을 지양하는 의견수용의 자세, 존중과 배려소통과 화합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의 조직문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품질평가원은 조직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수필공모전, 부서별 조직문화 활동, 실천결의대회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1월 25일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뇌성마비 재활원인 양지의 집에서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형규 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통하여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를 마련한 만큼 추운 겨울에 건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의 집 윤순이 부원장은 “이번 김장 담그기 행사에 품질평가원이 그린농장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해준 품질평가원에 감사하며, 올 겨울나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김장봉사에 함께 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앞서 양지의 집에서는 품질평가원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고마움을 기리는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근무 중 부상 직원 위로 방문 및 성금 전달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던 중 수소에 받쳐 장시간 수술을 받은 김원일 방역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방역본부 임직원의 위로 방문과 성금 전달이 이뤄져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방역본부 배상호 본부장과 조우영 충북도본부장은 지난 11월 11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중인 충북도본부 김원일(40세)씨를

직접 방문하고,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모금한 성금 6백여만원을 전달하면서 “우리 본부 전 임직원들은 하루빨리 건강이 완쾌되길 바라고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원일씨는 “주위의 많은 관심 덕분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성공적인 HACCP운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11월 28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축산물 HACCP 지정업체 및 지정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HACCP운용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상반기에 이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지정업체에는 HACCP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HACCP운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며, 미지정업체에게는 정확한 HACCP운용방안 제시로 쉽고 효율적으로 축산물HACCP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하림 외 31개 업체에서 45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는 성공적인 HACCP 운용 방법과 기존 지정업체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예방방법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2부에는 선행요건관리기준의 주요관리방법, 7원칙 12절차의 심층적인 이해와 HACCP 현장적용

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중앙시장 상인회관에서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기준원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동호회 운영 시 전통시장 방문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체결은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이루어졌다.

자매결연 체결 직후 시장 투어를 하면서 상인들과 하심탄화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전통시장의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몸소 실천하여 이날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석희진 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장려하고 실제 구매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며, 서로간 특성에 맞는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앙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 우리맛닭, 수출 준비 이상 무(無)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16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한 '우리맛닭'이 일본 수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무역 전문업체인 신와테크노서비스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맛닭 농장, 가공장, 대형백화점,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고 이미 산업화를 갖춘 토종닭 현황을 둘러보며 우리맛닭의 일본 수입을 희망하고 돌아갔다.

특히 일본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 중 축산과학원을 방문해 우리맛닭 복원 배경과 방법, 종자의 중요성 등을 들으며 우리맛닭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국의 축산 기술과 토종닭 인증 기준 등을 비교하고 향후 선진화 된 축산 기술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한닭 판매인증 1호점인 큰나무집을 방문한 일행은 궁중약백숙과 토종삼계탕을 맛보고 우리 한닭이 일본인의 입맛에도 맛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와테크노사의 관계자는 맛있는 우리맛닭을 일본 관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토종삼계탕 소량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 일본 농림수산청, 백화점,

유명 레스토랑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신와테크노사의 竹内正文 이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맛닭의 우수성을 잘 알았고, 한국 토종닭이 일본에 조속히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우리맛닭의 일본 수출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 제21대 회장으로 김경주 현 회장 당선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11월 12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한 2011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2~2013년 2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제 21대 임원으로 회장(1명), 감

사(2명), 상임이사(19명)를 선출했다.

제21대 회장으로서는 김경주 현 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영양팀)이 재선출되었고 감사도 현 양일선(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식품영양학과 교수), 곽동경(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감사가 재선출되었다. 또 영양사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에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분과비례이사 6명과 대의원총회에서 인준 받은 임명직 이사 2명 등 총 30명의 21대 임원진이 구성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12만여 영양사의 권익신장과 자질향상, 영양사직 발전을 위한 협회 정책·사업·홍보 등의 활동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